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독서왕융디2기

<table>
<tr><td rowspan="8">1주차</td><td>일시</td><td colspan="2">3월 29일 12 : 00 장소명 : 한성대 창의관 5층 501호</td></tr>
<tr><td rowspan="6">참여 학생</td><td>클럽원 정보</td><td>참석 여부</td></tr>
<tr><td>최유빈 2405032 (팀장)</td><td>O</td></tr>
<tr><td>김소명 2405007</td><td>O</td></tr>
<tr><td>임재빈 2405017</td><td>O</td></tr>
<tr><td>김수민 2405037</td><td>O</td></tr>
<tr><td>이지원 2405035</td><td>O</td></tr>
<tr><td>진도</td><td>도서명: 트렌드코리아2026</td><td>진도페이지: 5 p. ~ 130 p.</td></tr>
<tr><td>토론 내용</td><td colspan="2">
[좌측부터 이지원/김소명/김수민/임재빈/최유빈]

임재빈 : 『트렌드 코리아 2026』를 읽으면서, 단순히 유행을 나열한 책이 아니라 현재 사회의 변화 흐름을 정리한 분석서에 가깝다는 느낌을 받았다. 특히 2025년 대한민국을 돌아보는 부분에서는 소비자들의 태도 변화가 눈에 띄게 강조되고 있었는데, 이전과 달리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의미와 가치를 함께 소비하려 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책에서는 무경계 소비자나 일상에 의미 더하기 같은 키워드를 통해, 소비자들이 점점 더 자신의 취향과 신념을 중심으로 소비를 결정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를 읽으면서 요즘 주변 친구들이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제품보다도 브랜드 이미지나 가치관을 보고 소비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또한 바이오 시대 극복하기나 기후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앞으로의 사회가 단순한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 환경, 건강, 지속 가능성과 같은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공감이 갔는데, 앞으로의 소비나 산업은 단순히 편리함만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 책임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이러한 변화들이 기업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기업이 시장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소비자의 인식과 선택이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기업들이 단순히 제품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비자와의 관계나 경험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느껴졌다.</td></tr>
</table>

1주차	토론 내용	최유빈 : [트렌드코리아2026]를 작년 12월달에 교보문고에서 구매해서 이미 1차례 읽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서클럽 도서선정에 [트렌드코리아2026]을 추천한 이유는, 디자이너나 마케터, 혹은 이 경제를 살아가는 하나의 소비자와 트렌드 전망의 중심인 MZ세대로서 트렌드의 흐름이 어떤식으로 흘러가고 또 어떤식으로 달라지고 어떤식의 인사이트를 불러오는지에 대해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아 독서클럽 임원들도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여 이 책을 추천하게 되었다. 책의 전반부에서는 불확실하고 빠른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소소한 실천과 꾸준한 성장(조용한 축적)'을 통해 하루를 무탈하게 보내는 것에 집중한다고 한다. 나 역시 매일 아침 짧은 운동 루틴을 실천하며 일상의 단단함을 얻고 있기에, 스스로 통제 가능한 작은 목표에서 성장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의 심리에 깊이 공감했다. 결국, 트렌드를 읽는다는 것은 거창하고 빠른 변화를 쫓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에 어떤 방식으로 다가갈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과정인 것 같다. 나 역시 앞으로 시각적인 결과물을 만들거나 브랜드를 기획할 때,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크게 쥐여주거나 압도하려 하기보다 그들의 작지만 단단한 루틴 속에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스며드는 작업을 해나가고 싶다. 김소명 : 이 책은 단순히 제목만 보고 '매년 디자인 트렌드를 분석하거나 디자이너가 쓴 책인가?' 하는 생각으로 집어 들었다. 하지만 작가의 서문을 읽자마자 내 예상이 틀렸음을 깨달았다. 책은 작년 한 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트렌드와 흐름, 그리고 올해 예측되는 상황을 구체적인 예시와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었다. 그동안 읽었던 비문학 도서들은 최신 내용이 부족해 과거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트렌드 최전방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으로서, 이 책의 모든 내용은 고개를 끄덕이며 읽을 수밖에 없었다. 작년 한 해 내가 유행을 쫓으며 직접 느꼈던 바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작가가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깊이 체감할 수 있었다. 특히 요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AI, 한류, '두쫀꾸'와 같은 빠른 유행 트렌드, 그리고 러닝 열풍까지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어 막힘없이 술술 읽혔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AI를 단순히 인간의 일을 뺏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낫게 만들어줄 '파트너'로 생각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또한, 작년 한 해 국가적·세계적으로 여러 사건이 겹치며 많은 이들이 느꼈던 심리적 불안감이 '타로, 사주, 스트레스 볼' 등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나비효과'처럼 풀어낸 대목이 인상적이었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시기에 이 책은 트렌드 속에 숨은 대중의 심리를 명쾌하게 짚어주었다 김수민 : 이 책은 AI가 일상이 된 시대에서 기술과 인간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 날카로운 통찰을 제시한다.특히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말 위에 올라탄 기수로서 인간이 가져야 할 '주도권'에 대한 서두의 비유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책에서 강조한 '휴먼 인 더 루프' 개념은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결국 최종적인 가치 판단은 인간의 몫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감정이 소비의 핵심 동력이 되는 '필코노미' 현상을 보며,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다. 또한 검색 없이도 취향을 읽어내는 '제로 클릭'의 편리함 이면에 숨겨진 선택의 주체성 상실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느꼈다. 결국 2026년의 트렌드는 단순히 첨단 기술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활용해 '가장 나다운 삶'을 설계하는 과정인 듯하다. 변화의 속도가 무척 빠르지만, 그 흐름을 읽고 대처할 수 있는 혜안을 얻은 것 같아 매우 유익한 독서 경험이었다. 이 책은 미래를 불안해하기보다 변화의 파도를 타고 나아갈 용기와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데 큰 이정표가 되어주었다. 이지원 : 이 책을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트렌드의 방향이 더 빠르고 자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과거에는 새로운 것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자신의 속도에 맞춰 균형을 유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소비의 변화보다 '선택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가격이나 기능만을 보고 소비하지 않고, 이 선택이 자신의 삶과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함께 고려하고 있었다. 이는 소비가 단순한 구매 행위를 넘어, 개인의 가치관과 연결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생각해볼 점이 많았다. '제로 클릭'과 같은 환경은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사용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다. 이 책에서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인간의 판단과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고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특히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 앞으로의 디자인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새롭거나 눈에 띄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사용자가 자신의 기준을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느꼈다.

<table>
<tr><td rowspan="8">2주차</td><td>일시</td><td colspan="2">4월 11일 12 : 00 장소명 : 한성대 창의관 5층 501호</td></tr>
<tr><td rowspan="6">참여 학생</td><td>클럽원 정보</td><td>참석 여부</td></tr>
<tr><td>최유빈 2405032 (팀장)</td><td>O</td></tr>
<tr><td>김소명 2405007</td><td>O</td></tr>
<tr><td>임재빈 2405017</td><td>O</td></tr>
<tr><td>김수민 2405037</td><td>O</td></tr>
<tr><td>이지원 2405035</td><td>O</td></tr>
<tr><td>진도</td><td>도서명: 트렌드코리아2026</td><td>진도페이지: 131 p. ~ 210 p.</td></tr>
<tr><td>토론 내용</td><td colspan="2">
[좌측부터 이지원/김수민/최유빈/임재빈/김소명]

임재빈 : 이번 p.131~210 구간을 읽으며 가장 강렬하게 다가온 지점은 기술의 고도화가 인간의 삶을 단순히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우리의 자아와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키워드는 레디코어와 픽셀 라이프입니다.
과거의 트렌드가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몸을 맡기는 방식이었다면, 2026년의 대중은 극도로 파편화된 픽셀의 세상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철저히 예행연습하고 준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책에서 묘사된 것처럼,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제 막연한 낙관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고, 아주 작은 단위의 일상까지 스스로 통제하려 노력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인이 느끼는 불안의 방증인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려는 능동적인 진화 과정으로 느껴졌습니다.
또한, 1.5 가구와 같은 새로운 인구 구조의 등장은 주거와 소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 살지만 고립되지 않고, 타인과 연결되되 침해받지 않으려는 느슨한 연대의 욕구는 앞으로의 비즈니스가 인간의 외로움과 독립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공략해야 할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결국 2026년의 트렌드는 초개인화라는 모호한 단어를 넘어, 개인의 기분과 상황에 맞춘 필코노미적 접근이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책을 덮으며, 급변하는 기술적 환경 속에서도 결국 중심을 잡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본질적인 감성과 선택의 주체성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미래를 읽는 것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향유하는 인간의 변화된 마음 읽는 작업임을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파트였습니다.</td></tr>
</table>

2주차	토론 내용	최유빈 : 트렌드 코리아 2026의 131p~210p를 읽으며, 필코노미 키워드 단락에서 소비가 단순한 필요 충족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특히 소비의 기준이 가격이나 효용이 아니라 '지금 내 기분'이 된다는 점에서 공감이 갔다. 나 역시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작은 보상을 소비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떠올렸다. 이러한 소비는 일시적인 위로를 주지만, 동시에 감정과 지출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기업들이 이러한 감정 중심 소비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소비는 더 이상 물건을 사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을 관리하는 하나의 방식처럼 느껴졌다. 그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느끼고 싶은 감정'이 더 중요해진 시대임을 실감했다. 결국 필코노미는 개인의 감정과 시장이 맞닿아 있는 새로운 소비 흐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김수민 : 해당 파트를 읽으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기술의 발전이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인간의 삶의 방식과 내면까지 깊이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특히 '레디코어'와 '픽셀 라이프'라는 개념은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는 키워드로 다가왔다. 과거에는 사회의 큰 흐름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면, 이제는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사람들은 미래를 낙관하기보다 다양한 상황을 미리 가정하고 대비하며, 일상의 작은 선택 하나까지도 통제하려 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불안의 표현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적극적인 적응 방식처럼 느껴졌다. 특히 '필코노미'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이 갔던 대목이었다. 소비는 더 이상 기능이나 가격 중심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러한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하나의 수단처럼 작용한다. 결국 사람들은 물건 자체보다 그 소비를 통해 느끼게 될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필코노미'에 대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이 갔던 대목이었다. 소비는 더 이상 기능이나 가격 중심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러한 소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하나의 수단처럼 작용한다. 결국 사람들은 물건 자체보다 그 소비를 통해 느끼게 될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지원 : 트렌드 코리아 2026의 131p~210p를 읽으며 느낀 가장 큰 특징은, 오늘날의 트렌드가 더 이상 단순한 유행이나 소비 흐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 구간에서는 기술, 소비, 사회 구조의 변화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물리며 사람들의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으로 드러났다. 특히 레디코어와 픽셀 라이프라는 키워드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의 태도를 잘 보여주는 개념처럼 느껴졌다. 과거에는 사회 전체의 큰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자연스러웠다면, 이제는 각자가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며 자신의 일상을 더 세밀하게 조정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막연히 미래를 기대하기보다, 예상 가능한 변수들을 미리 점검하고 작은 선택 하나까지도 스스로 통제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불안이 커졌다는 의미라기보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 안에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며 살아가려는 방식처럼 느껴졌다. 또한 필코노미에 대한 내용도 매우 흥미롭게 읽혔다. 이제 소비는 단순히 물건을 구매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다루고 현재의 상태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소비의 기준이 가격이나 효율에 더 가까웠다면, 이제는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을 원하고 어떤 감각을 얻고 싶은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결국 이 파트는 기술, 소비, 사회 구조의 변화 자체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변화에 반응하는 인간의 심리가 놓여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트렌드를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유행하는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버티고 조절하며 자신만의 균형을 만들어가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김소명 : 솔직히 이 구간을 읽으면서 처음엔 키워드들이 좀 낯설게 느껴졌다. 레디코어, 픽셀라이프, 필코노미... 단어만 봤을 땐 그냥 마케팅 용어 같았는데, 읽다 보니 전부 내 일상이랑 연결되는 얘기였다. 그중에서 필코노미가 제일 와닿았다. 시험 끝나고 별 이유 없이 뭔가 사고 싶어지거나, 기분이 별로일 때 카페 가서 비싼 음료 시키는 거, 그게 그냥 충동이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려는 행동이었다는 게 신기했다. 책에서 설명하는 걸 읽으면서 "아 내가 이미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싶었다. 소비의 기준이 가격이 아니라 지금 내 기분이 됐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니라 너무 공감이 됐다. 레디코어도 요즘 세대한테 딱 맞는 키워드 같았다. 주변 보면 다들 뭔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플랜 B까지 짜두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그게 불안해서가 아니라 그냥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1강 읽을 때도 느꼈지만, 이 책은 트렌드를 설명하는 척하면서 결국 지금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 읽으면서 계속 "나 얘기네" 싶은 순간이 많았던 파트였다.

3주차	일시	5월 7일 20 : 00 장소명 : 스타벅스 (용산점)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최유빈 2405032 (팀장)	O
		임재빈 2405017	O
		이호찬교수님	O
	진도	도서명: 트렌드코리아2026	진도페이지: 211p. ~ 294p.
	토론 내용	 [좌측부터 이호찬교수님/ 임재빈/ 최유빈] 임재빈 : 이제 AI가 단순히 편해지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대신 결정을 내려주는 '제로클릭' 시대가 진짜 코앞이라는 게 실감 났습니다. 기술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럴수록 기계가 흉내 낼 수 없는 인간만의 질문하는 힘이나 감정적인 공감이 브랜드의 진짜 경쟁력이 된다는 점이 꽤 모순적이면서도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각자 취향이 극도로 세분화되는 픽셀 라이프나 불안함을 루틴으로 이겨내려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정답이 정해진 삶보다는 나만의 조각을 어떻게 맞춰나가느냐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것 같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기술에 매몰되기보다 그걸 도구 삼아 내 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문장들이 전공 공부나 앞으로의 진로를 고민하는 입장에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트렌드 분석을 넘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방향을 조금이나마 잡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최유빈 : 이번 3주차 분량은 대부분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묻고 있었습니다. 책장을 덮고 나니, 얼마 전 보았던 김애란 작가님의 인터뷰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AI가 절대 흉내 낼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망설임입니다." AI는 이제 공감과 응원, 슬픔 같은 감정의 결마저 흉내 내며 완벽에 가까운 기술을 가졌지만, 그 과정에는 결코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떤 컬러, 어떤 레이아웃, 어떤 방향성들이 이 브랜드의 진짜 본질을 담아낼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하고, 그렸다가 지우기를 반복하며 끊임없이 망설입니다. 저는 그 촘촘한 망설임의 궤적들이야말로 AI의 매끈한 결과물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다채로운 해석이자 뾰족한 차별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호찬교수님 : 2025년 트렌드코리아에서는 사회의 전체적인 전망에 대한 안 좋은 이유의 내용이 주로 다뤘다면 이번 2026년 트렌드코리아에서는 Ai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픽셀라이프 키워드처럼 셀럽, 인플루언서, 유행 등 사람들이 좋아하는건 금방금방 쉽고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내가 20대때와 지금의 20대때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고, 유행을 쫓는거 역시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지금 현 시대에 유행이란게 존재하는가? 너무 쉽고 빠르게 지나가는 유행이 과연 유행이라 할 수 있는가?. AI와 현존하고 있는 시대에서 우리는, 우리가 유행을 선도하고 나만의 색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고 갈망하고 이런게 아닌, 나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세상의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어야한다.

<table>
<tr><td rowspan="8">4주차</td><td>일시</td><td colspan="2">5월 23일 14 : 00 장소명: 그라운시소 센트럴</td></tr>
<tr><td rowspan="6">참여 학생</td><td>클럽원 정보</td><td>참석 여부</td></tr>
<tr><td>최유빈 2405032 (팀장)</td><td>O</td></tr>
<tr><td>임재빈 2405017</td><td>O</td></tr>
<tr><td>김수민 2405037</td><td>O</td></tr>
<tr><td>이지원 2405035</td><td>O</td></tr>
<tr><td>이호찬교수님</td><td>O</td></tr>
<tr><td>진도</td><td>도서명: 트렌드코리아2026</td><td>진도페이지: 295 p. ~ 401 p.</td></tr>
<tr><td>토론 내용</td><td colspan="2">

[좌측부터 임재빈, 최유빈, 이호찬교수님, 김수민, 이지원]

[토론 주제 : 2027 트렌드 코리아에서 다뤄질 내용 예측해보기]

최유빈 : 2027년 트렌드코리아에서 다룰 전반적인 키워드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와 대비되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에 대해. 그리고 인간만의 표현할 수 있고 인간으로 인해 나올 수 있는 여러 희소성들에 대한 내용으로 2027 트렌드코리아 - 키워드가 다뤄질것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AI가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빠르게 습득하고 학습하는 능력은 무척 뛰어난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AI를 조종하고 입력하여 자유자재로 다루는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함, 희소성,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 이러한 내용으로 2027년 트렌드코리아 - 키워드의 내용이 다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수민 : 2027년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AI 기술의 발전 이후, 오히려 인간의 가치와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지는 사회를 다룰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AI가 반복적인 업무와 생산성을 대신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기술보다 인간만이 줄 수 있는 감정, 공감, 경험을 더 찾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과 사회 역시 단순한 능력보다 창의성, 소통 능력, 인간다움을 중요하게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인간은 AI와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만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7년은 “AI의 시대”를 넘어 “사람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td></tr>
</table>

4주차	토론 내용	이지원 : 2025년에는 경제 전망과 소비 흐름이 중심이었다면, 2026년에는 AI가 가장 큰 키워드로 다뤄졌다는 점에서 트렌드가 정말 빠르게 바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2027년에는 AI가 더 이상 새롭고 신기한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기본 도구처럼 자리 잡을 것 같다. 그만큼 사람들은 AI를 단순히 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다. 또 개인의 취향이나 생활 패턴에 맞춘 서비스가 더 세밀해지면서, 초개인화된 경험이 하나의 큰 흐름이 될 것 같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을 통해 사람이 어떤 생각과 감정을 담아내는지라고 느꼈다. 2027년의 트렌드는 AI의 발전 이후, 다시 인간의 역할과 개인 맞춤 경험을 고민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 임재빈 : 2027년에는 AI 기술이 더욱 발전할수록 오히려 인간다움의 가치가 더 중요해질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는 빠르고 정확한 능력이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정, 공감, 경험, 개성과 같은 요소들이 더욱 큰 경쟁력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콘텐츠나 마케팅 분야에서도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이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AI는 다양한 작업을 대신할 수 있겠지만, 사람만의 감성과 진정성까지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2027년의 트렌드 키워드는 기술 자체보다도 '인간의 가치', '공감', '진정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중심이 될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최유빈 2405032 (팀장)	팀원들, 교수님과 함께 약 3달간 2026 트렌드 코리아 책을 주차별로 읽으면서 다양한 사고와 관찰. 책을 통해 느꼈던 감정들을 서로 나누면서 미쳐 생각하지 못 했던 여러 의견들을 통해 저 또한, 배움이 많았습니다. 어쩌면, 독서클럽의 목적성은 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넘어,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는 것. 그로인해 상대방을 공감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한 배움의 목적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2	이지원 (2405035)	『트렌드코리아 2026』을 읽으면서 기술이 이제 단순히 편리한 기능을 넘어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생활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는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특히 레디코어와 픽셀 라이프를 보면서 요즘 사람들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기보다, 스스로 더 많이 준비하고 대비하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AI도 앞으로는 새롭고 신기한 기술이라기보다, 스마트폰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쓰이는 도구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는 AI를 잘 다루는 것보다, 그 안에 사람이 어떤 생각과 감정을 담아내는지가 더 중요해질 것 같았다. 독서클럽을 하면서 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마다 기억에 남는 부분이 다르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혼자 읽었다면 그냥 넘겼을 부분도 팀원들과 교수님의 의견을 들으면서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은 책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이라기보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면서 내가 보지 못했던 부분까지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3	김수민 (2405037)	트렌드 코리아 2026을 읽으며 AI가 앞으로 사회를 얼마나 빠르게 변화시킬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술의 발전과 효율성에 대한 내용이 가장 인상 깊었지만, 책을 읽고 독서클럽을 진행하면서 오히려 결국은 다시 '사람의 시대'로 돌아오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팀원들과 교수님의 의견이 서로 조금씩 달랐음에도, 결국 인간만의 감정과 공감, 경험의 가치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비슷한 결론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AI가 점점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인간다운 감성과 진정성을 더 찾게 될 것 같았습니다. 이번 독서클럽은 단순히 책 내용을 이해하는 시간을 넘어, 앞으로 인간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4	이재빈 (2405017)	트렌드 코리아 2026를 읽으며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비 방식과 생활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 수 있었다. 특히 AI와 개인화 트렌드가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독서모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들을 수 있어서 다양한 시각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고, 앞으로의 마케팅과 콘텐츠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